

뉴스 & 뉴스

인덕원 22일 어른잔치

인덕원(이사장 성운스님)은 22일 오전 11시 지역노인 4백여명을 초청, 노인잔치를 연다.

이날 노인잔치는 인덕노인대학 학생들의 장기자랑 및 사물놀이 공연, 신가회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흥을 돋운다. 인덕원은 또한 노인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보시해 온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23일 오후 5시 '자원봉사자 감사 잔치'를 연다.

김재경 기자

자양복지관 '흰눈교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2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지역내 결핵이환 위험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흰눈 교실'을 연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중심으로 매주 월~토요일 오전 12시30분부터 lunch 제공은 물론 오후 3시부터 2시간 특강을 진행한다. (02)458-6796 김재경 기자

승가대 입시요강 변경

중앙승가대학교 입시요강이 일부 변경됐다. 중앙승가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원서교부일자가 당초 12월 14일~99년 1월 11일까지에서 12월 14일~99년 1월 3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또 원서접수기간도 당초 99년 1월 5일~11일까지였던 것이 12월 28일~99년 1월 3일까지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02)925-5507(교 202)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평불협 금강산관광 접수

불교계에서도 금강산관광을 신청받는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와 한불관광여행사(대표이사 목원스님)는 현대그룹으로부터 금강산관광 지정대리점으로 선정돼 금강산관광 접수 업무에 들어갔다. 상문관광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불협과 한불관광여행사는 금강산 3박4일 코스에 최고 4백12만원에서 최저 68만원에 신청을 받고 있다. 상문관광 (02)722-2233, 한불관광여행사 (0537)643-6448

도필선 기자

불교TV 노조 결정

불교TV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불교TV노동조합은 9일 마포 석불사에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에 신동우 제작부 차장을 선출했다. 불교TV 노동조합은 이날 △방송 본연의 임무에 충실 △특정 개인 및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송 지양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당한 압력 및 업무 지시의 거부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사내 비호적 요소 해결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에는 제작부, 기술부, 사업부 등 55명이 가입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교계 13개 노숙자시설 '복직'

정원초과 수용... "쌀·김치등 부족"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을 비롯 13개 교계 노숙자 시설의 인원이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 보현의 집은 지난달 1백50여명이던 숙소 이용자가 10일 현재 3백여명에 이르는 등 여름철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 더 이상의 인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송동 보현의 집도 11월 20여명 정도였던 인원이 현재는 40명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며, 서계동 보현의 집도 한달 사이에 50명이었던 인원이 65명으로 늘었다. 부산 보현의 집 역시 지난 9월 개원 당시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75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계동 보현의집 김익중 소장은 "수용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원봉사자들 비롯 쌀과 밀반찬 모든 것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불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현재 교계에서는 서울 영등포·서계동·수송동 보현의집을 비롯 인덕원, 구로, 길음, 능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노숙자쉼터인 '희망의 집'(수용인원은 20~30명)을 개설하고 있다. 또 우리선우의 '희망동산'과 본동사회복지관 희망의집은 여성 노숙자 시설을 설치했다.

이밖에 경복궁과 승가원도 노숙자 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승가원은 장애인 노숙자 시설을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불자련 '동지포덕'

성금모아 불우이웃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동지(22일)를 맞아 불우이웃과 장애인, 무료급식소 등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동지포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연합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천왕사에서 동지기도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의 동지포덕 기간 동안 모인 자비의 성금은 내년 1월8일 불우이웃 및 장애아 5명, 소년소녀가장 4명, 실직자와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2개소, 민간단체 1곳에 전달된다. (02)723-6258 김재경 기자

역삼노인복지관

총지종 수탁운영

총지종유지재단은 10일 강남구청이 연 역삼노인복지관 위탁자 결정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자선단과 대한사회복지회, 영산 등 3개 법인과 수탁경쟁 법인 결과 수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 복지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총지종유지재단은 "역삼 2동과 도곡 1, 2동 주민포교와 지역내 중년위상 강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총지종유지재단은 10일 강남구청이 연 역삼노인복지관 위탁자 결정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자선단과 대한사회복지회, 영산 등 3개 법인과 수탁경쟁 법인 결과 수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 복지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총지종유지재단은 "역삼 2동과 도곡 1, 2동 주민포교와 지역내 중년위상 강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도필선 기자

'자랑스런 서울시민상' 받은 불자 안병숙·강학일씨

불우이웃에 아낌없는 자비행

IMF한국로 더욱 촉매탄 느껴지는 겨울, '내 가정', '내 한 몸' 추스르기도 벅찬 이 시기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자비행을 펼치는 불자들이 있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무료식당인 서울 길동 관음의집을 운영하는 안병숙(67) 보살과 반야라이온스클럽 강학일(49) 회장. 두 사람은 그간의 선행으로 12일 서울시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서울 시민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이날 시민화합부문 '자랑스런 서울 시민상'을 수상한 안병숙 보살은 강동구 길동 만종빌딩 지하에 관음의집을 개설, 저소득 결식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해 무료급식, 무료이발 제공 등 자비와 봉사의 삶을 산 공로를 인정받았다.

4년째 70평 규모의 관음의 집에서 '점심공양'을 운영하고 있는 안 할머니는 주위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 점심 한끼 나누자는 생각에서 95년 자신 소유 빌딩의 지하층 세입자를 내보내고 관음의집 현관식을 가졌다.

그동안 무료로 점심을 대접한 연인원만 3만여명. 한 번 밥 할 때마다 20kg의 쌀이 들어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문사에서 쌀을 보내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다. 안씨 할머니

내년 문화재관리 예산는다

올 비해 219억원 증액

대장경전산화 11억 지원

내년 문화재관리예산이 올해에 비해 문화재보수 부문 1백50억원, 전통문화학교 지원 26억원, 해양유물전시 15억원 등 총 2백19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문화관광부 총 예산은 7천8백69억원으로 올해보다 2백95억원 늘었다. 특히 문화부분 예산이 5천1백5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8%가 증가했으며,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전년대비 0.1%가 늘어나 0.7%를 달성했다.

=99년도 예산안의 주요 쓰임새는 △고려대장경 전산화지원-11억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90억원 △국립지방박물관 건립-1백39억원 △지방박물관 전시·수장 시설 건립-1백41억원 △박물관 시설 보강-24억원 △박물관 유물구입-30억원 △국립중앙박물관 신

의 빌딩 2층에서 한의원을 열고 있는 셋째 사위 최원호씨(38)도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인술을 배운다.

IMF사태를 맞아 안 보살의 빌딩도 텅비다시피하고 보증금 상환압력을 받아 형편이 어렵지만 '점심공양'은 줄일 계획이 없다. "이것마저 없으면 가족이나 갈 곳 없는 노인들은 어디로 가겠어요"라는 것이 그녀의 대담.

강학일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청진동에서 '청진장'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불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휠체어 등을 기증하는 등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7년전부터 매년 종로구청의 추천을 받아 6명의 중·고생들에게 각기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안양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시설과 고아원 양로원 등에 수시로 필요한 성금과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또 조계사청년회의 탐골공원 무료급식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반야라이온스클럽 예산 2천만원으로 탐골공원 인근 새마을회관에 50명의 경로 식단을 마련, 종로구청에 기증하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10일 '자랑스런 서울시민상'을 받은 안병숙보살(왼쪽)과 강학일회장.

"문화탐방마저 종교편향이라니..."

서울연맹 '청소년 탐방교육' 사찰등 제외

서울시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연맹(총장 유주영, 이하 서울연맹)이 최근 실시한 '청소년 역사·문화현장 순례'를 지켜본 교계는 서울시와 서울연맹의 종교편향적 청소년 교육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서울연맹이 최근 펴낸 <서울문화유적을 찾아서>에서 비롯됐다. 이 책에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청소년 역사·문화현장 순례'에서 청소년들이 방문했던 역사·문화현장 34곳이 정리·수록됐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대표하는 정동교회와 명동성당을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현장으로

선정한 반면 불교와 관련된 곳은 한 곳도 방문하지 않아 종교편향적 청소년 교육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는 서울지역 청소년 2만여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 행사에 참여한 2만여명의 청소년들은 개신교와 천주교 성지만을 '서울의 역사·문화현장'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연맹 전담차장장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청소년들을 고려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순례지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박순상씨(서울시 교육과 담당자)는 "작은 예산으로 이뤄진 청소년 행사인 만큼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그러나 서울 소재 불교유물·유적 가운데 강남구 봉은사, 종로구 원흥사지, 종각구 극락사, 도봉구 원통사, 강북구 화계사 등은 도심과 떨어져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 행사에 무려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연맹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교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리의 전문문화의 정수는 속 빼놓고 전해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유적지 선정에 너무 안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니면 진정한 종교적 편견이 빛을 어찌구무없는 결과일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 명동성당과 정동교회는 들어 있는데, 왜 사찰은 한 곳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담당자는 "작은 예산으로 치러진 행사는 예산이 적은 돈인가, 1백만원이라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더구나 시민의 세금이 쓰여진 사업이다. 서울시는 관리감독의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책임행 정으로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swjung@buddhania.com)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 1부 차장대우)

이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서울연맹의 담당 부장은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순례지로 정했다"고 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게으르고 나약하던 말인가. 시내 한 복판에 있는 봉은사가 찾기 어려운 곳인가. 이렇듯 사찰은 우리 전문문화의 향기가 짙게 스며 있는 곳이다. 역사현장 순례 행사에 5개월 동안 2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는데, 정작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우

Advertisement for Dalma-do calligraphy scrolls. It features a list of scrolls (A-1 to B-1) with prices and a contact number for Daegu Youngwon. The scrolls depict various figures and scenes in traditional calligraphy style.

Advertisement for 'Xiang Ni' (香妃) health products. It promotes the benefits of the product for women's health, particularly in relieving stress and improving circulation. It includes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Hanokmulhan.